

# 교육·문화·관광에 명상 결합시키자

## 교불련 한국교수불자대회서 '한국불교 명상의 세계화 전략' 모색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6월 28~30일 강원도 법흥사에서 한국불교 명상의 세계화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법 스님 (왼쪽) 김용환 교수 (오른쪽)

현재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바른 공의와 정론은 무시되고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무모한 정책과 개발이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은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성 등의 혼돈을 겪으며 정신적인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적 고유정서가 배어있는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한국불교와 선(禪)사상으로 건강한 정신문화를 주도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6월 28~30일 강원도 법흥사에서 '조화로운 국토이용과 한국불교 명상의 세계화 전략'의 주제로 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국토이용과 한국불교 명상을 교육·문화·관광적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해 불교정도를 건설하고 전략적으로 한국불교 명상을 세계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일치했다.

행사에 김규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가 '자연과 사회의 변화가 가져올 현대 불교문화의 발전전망'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가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가치적 전략'을, 이재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이 '불교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문화관광학적 측면에서 발표했다. 이시중 한국재활복지대 교수가 '선문답의 교육적 생명력'을, 김용환 충북대 교수가 '명상의 세계 윤리적 가치'를 교육학적 측면에서 고찰했다. 이 밖에 김선근 동

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중기 우빠니샤드에 나타난 명상의 의미'를, 명법 스님(서울대 외래교수)이 '한국 불교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반성과 제안'을 위해 영 연세대 인문학 연구원이 '유식과 선 불교의 꿈 해석'을 불교학적 측면에서 발표했다.

### #교육·명상·관광 융합은 유망산업

김규철 교수는 급변하는 지구환경과 기후, 정신적 사유의 변화를 겪는 인간 사회 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불교문화를 발전시켜야 할지를 고찰했다.

김 교수는 "불교의 미학·심리학적 요소를 최대한 살려 사찰환경과 문화의 변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불국사와 석굴암은 불교적 사상과 철학, 윤리도 담겨 있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미학적 요소도 담겼다. 삼국시대의 통일신라시대가 그 당시로서 가장 현대적인 '미학적 원리로서의 불교'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현했던 시대였듯이, 현재에 가장 현대적인 의미에서 미학적 요소 살려 불교를 세우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마음 통찰, 명상 등 불교심리상담분야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정신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와 학습 및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가불자들의 '미학적 요

소' 추구를 관광·교육·명상의 융합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대 불교와 융합의 시대. 명상 또한 명상만을 따로 하는 시대가 아니며 주마간산식 관광여행이나 쇼퍼위주의 관광은 빛을 잃어가고 체험·테마관광이 각광받고 있다"며 "이러한 아이템을 살려 드라마틱 다크 등 에듀테인먼트식 교육방법에 테마관광을 결합시키거나, 역사·문화·철학산책 등 산책관광과 명상을 결합해 순수 자연감상과 체험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유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대 최고의 유망산업분야를 개발하고 이끄는 데 승속이 따로 없다. 여기서 절실하고 바람직한 것은 수행자 측에서 먼저 지도적 포용적 자세를 취하고 대중과 신도를 위해 사찰 개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사찰 세계문화유산등재 가능

홍광표 교수는 "890점의 세계문화유산중 9점이 한국 문화유산이고 그 가운데 2점만이 불교문화재다. 지금부터라도 불교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불교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사찰은 유네스코가 인정할만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중국과 일본의 사찰과 차별화되는 한국사찰의 특징을 예로 들며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전략을 밝혔다.

홍 교수는 "산지사찰이 대부분인 한국사찰은 중심영역의 경우 원형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사찰이 많다. 주변 환경 역시 사찰과 연관된 기능을 보이는 사찰클러스터의 형태로 나타나며 영산재 등 다양한 무형유산들이 잘 보존되고 있음·정신을 위한 수련도량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교수는 "한국사찰은 여러 개의 사찰이 특정한 문화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고 지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이들을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며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가능한 사찰들이 등재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다양한 제약은 극복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회피한다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요가 명상으로 세계시민성 함양

김용환 교수는 "명상을 통한 연대·관용의식과 세계시민성을 함양해 세계적 규모의 기아와 식량 문제 등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요가명상의 목표는 연대성 삼매(三昧)이며, 이는 곧 신비로운 비전이나 초능력을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 시민적 제약과 한계로부터 벗어나 초월적 자비를 깨달음에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연대성의 깨달음은 세계시민성에서 공(公)과 사(私)를 매개하는 가치를 드러내며, 업보에서

벗어나 세계시민으로 원생으로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윤리의 연대성 가치를 보여준다"며 "명상을 통한 연대성과 관용성을 발휘해 상생에 기초한 시민사회구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한인포교 시급

명법 스님은 미국 이민사회에서의 한국불교 포교 방안에 대해 조명했다.

스님은 "유럽에서 아랍계 이민의 증가는 이슬람 확산을 가져왔고, 미국에서는 라틴계의 증가가 가톨릭 신자의 증가를 초래했으며,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은 불교가 미국에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인의 세계화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동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이주한 이후 10년 내에 모국에서 믿어온 종교를 버리게 됨에 따라 기존의 불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명법 스님은 "미국 주류사회에 편입하려는 한인들의 열망과 더불어 교회가 이민자들의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의 빈 공간을 빠르게 채워나갔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사회 내에서 불교의 존립과 세력 확대를 위해 재외 한인들에 대한 포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이민과 조기 유학생들의 귀환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국내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듯 한인들의 영향력은 서양 주류사회뿐 아니라 모국인 한국사회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지금까지 서양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한국사회의 지도적 계층이 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세력이 확대됐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재외 한인에 대한 포교는 국내에서의 한국불교 존립을 위해서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 불교 관련 강좌가 개설돼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불교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기독교가 주류이지만 대학교와 일부 고등학교에선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불교가 지식인들의 주류문화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상황을 살펴 전 세계 한인세계의 주류를 이루는 기독교 세력에 대응해 한인사회 내에서 불교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나 기자

## '왕오천축국전' 내한 국립중앙박물관 12월 17일부터 특별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혜초 스님(慧超·704~787)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 1283년 만에 한국에 온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12월 17일~2011년 3월 말까지 개최되는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을 맞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왕오천축국전>을 전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왕오천축국전>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으로 1908년 프랑스 학자 펠리오(1878~1945)가 중국 둔황(敦煌) 마고굴에서 발견한 지 102년 만이다. 현재 <왕오천축국전>은 열람 신청 후 심사 등을 거친 전문연구자만이 볼 수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은 지난 4월 국립중앙박물관의 요청을 받은 후 17일 대외승인 심의회의를 거쳐 24일 대외 결정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세기 초 쓰여진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한국인이 작성한 최초 여행기로 7세기 현장 법사의 <대당서역기>, 13세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14세기 <이븐 바투타 여행기>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여행기 중 하나로 꼽힌다.

현존하는 <왕오천축국전>은 앞뒤가 훼손된 한 권의 두루마리로 된 필사본이며, 총 227행으로 남은 글자는 5893자다.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펠리오가 구입한 둔황 마고굴 문서 속에 포함돼 있었으며, 1909년 12월 10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왕오천축국전> 발견에 대해 보고했다. 1915년에는 일본 다카기스 준지로에 의해 혜초 스님이 신라 승려임이 밝혀졌다. (02)2077-9278 노덕현 기자

## 자비도량참법집해 보물로 문화재청 보물 3건 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근두)은 6월 28일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신편산학계몽(新編算學啓蒙)' '노자권재구의(老子齋齋口義)' 등 3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보물 중 주목받는 것은 보물 1653호 '자비도량참법집해'로 <자비도량참법>의 여러 주석서들을 모아 정리하고 풀이한 책이다. 이 책은 목판본으로 저본 활자는 <직지(直指)>를 찍은 '흥덕사자(興德寺字)'로 추정된다.

금속활자본은 전하지 않지만 고려 후기 <직지>의 에 또 다른 금속활자본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이날 문화재청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 가운데 조각류 93건(국보 30건, 보물 63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했으며 30일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 등 5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노덕현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5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쇄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주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0년 8월 19일까지

◆개강일시 : 2010년 8월 20일 (금)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은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게 끈기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지나 죽는 지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는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